



# 호주 주류시장 동향

김영웅 대리

## 호주 (Australia)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는 세계 주류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전 주중에 걸쳐 판매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신흥주류시장보다는 주류시장이 성숙단계에 들어선 선진국에서 특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성숙된 주류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았다. 호주에서는 맥주, 증류주, 와인 등 모든 주종에서 판매량이 경제위기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급주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호주에서는 'Coles'와 'Woolworths'의 두개 대형 슈퍼체인이 경쟁이 치열해지며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 두개 슈퍼체인은 호주내 주류소매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양사의 가격경쟁은 향후 호주 주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호주 주류 시장에 가장 큰 화두는 RTD<sup>®</sup>이다. 호주 정부는 2008년 청소년음주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RTD에 대한 세금을 70% 인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였다. 이에 RTD판매가격이 인상되고 판매량이 호주 전역에 걸쳐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9년 3월 폐기되었고, RTD에 대한 세율은 기존대로 유지되었다. RTD에 대한 세율인상이 취소된 후 RTD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RTD(Ready To Drink) : 가볍게 마시기 좋은 음료타입의 알코올로 위스키, 보드카, 와인 등의 주류를 탄산수, 콜라 등의 음료와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만든다.

있는 중이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RTD시장에 속하며 특히 버번위스키를 베이스로 한 RTD가 인기를 끌고 있다. 버번위스키와 버번위스키를 베이스로 한 RTD는 호주 증류주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류로 호주 증류주시장의 36%를 담당(버번위스키 베이스 RTD 22%, 버번위스키 12%)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스카치위스키가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증류주시장점유율은 14%이다.

호주 RTD시장의 대표주자로는 빔글로벌(Beam Global Spirits & Wine)의 '빔빔&콜라(Jim Beam & Cola)', '빔빔&제로(Jim Beam & Zero)', '빔빔&진저비어(Jim Beam & Ginger Beer)' 등이 있다. 이 제품들의 주요 고객은 만18세에서 34세 사이의 남성들이며, 최근에는 여성들의 소비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빔글로벌은 서핑, 자동차 경주와 같은 다양한 스포츠이벤트를 후원하며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빔빔은 RTD를 포함한 호주 증류주 시장 1위 업체로, 2008년 723,000상자(1상자=9Liter)의 증류주 판매를 기록했다. 이중 RTD가 차지하는 비중은 664,000상자이다.

호주에서 빔글로벌의 가장 큰 경쟁업체는 버번위스키 '잭다니엘(Jack Daniel)'로 유명한 브라운포맨(Brown-Forman)이다. 브라운포맨은 빔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잭다니엘을 베이스로 한 '잭다니엘&드라이(Jack Daniel & Dry)', '잭다니엘&레몬에이드(Jack Daniel & Lemonade)', '잭다니엘&콜라(Jack Daniel & Cola)' 등의 RTD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와 인

(Wine)

호주와인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포도품종은 샤르도네(Chardonnay)와 소비농블랑(Sauvignon Blanc)이다. 샤르도네는 오랜기간동안 호주내 와인품종 1위를 독차지해왔으나, 최근 소비농블랑이 인기를 얻으며, 2009년 3월 마침내 샤르도네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호주 와인시장은 자국내 제품이 확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수입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00년 2%에 불과하던 호주와인시장내 수입와인의 비중은 2008년에는 12%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호주에서 새로운 와인제품과 품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주로 샴페인과 프랑스, 칠레산 와인이 수입되고 있다. 한편 2008년 호주의 총 와인소비량은 4억 9,120만 리터로 2007년에 비해 3% 증가하였다.

## 맥 주

(Beer)

맥주는 호주주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종으로 2008년 17억 3,240만 리터의 맥주가 판매되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4.7% 증가한 양이다. 호주주류시장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으로 대중주로 인정받고 있지만 와인, RTD 등 타주류의 소비증가로 인해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호주 맥주시장은 포스터(Fosters Group)와 라이언 네이션(Lion Nathan) 양사가 양분하고 있다. 맥주 뿐만 아니라 와인, 증류주 모두 생산

### 호주 주류시장 현황 (2008)

구 분	소 비 량			증 감	점 유 율		
	2002	2007	2008	07-08	2002	2007	2008
맥 주	1,701.1	1,654.6	1,732.4	4.7%	70.5%	63.5%	65.7%
와 인	400.7	476.9	491.2	3.0%	16.6%	18.3%	18.6%
증 류 주	70.3	86.7	102.3	18.0%	2.9%	3.3%	3.9%
기타주류	241.0	387.0	310.5	-19.8%	10.0%	14.9%	11.8%
총 계	2,413.0	2,605.3	2,636.4	1.2%	100.0%	100.0%	100.0%

※ 자료 : Impact Databank

하는 종합 주류업체인 포스터는 '빅토리아 비터 (Victoria Bitter)', '포스터(Foster's)' 등의 맥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호주 맥주시장의 5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사인 라이언 네이션은 '포엑스(XXXX)', '투헤이즈(Tooheys)' 등의 맥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호주 맥주시장에서 포스터를 제외한 43%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라이언 네이션은 기린맥주(Kirin)로 유명한 일본의 기린홀딩스(Kirin Holdings Co)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기린홀딩스는 자국내 맥주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해외진출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호주의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하였다. 기존 라이언 네이션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던 기린홀딩스는 2009년 4월 나머지 지분마저 모두 인수하였다.

호주 주류시장을 종합해보면 RTD의 경우 세 금인상의 부담에서 벗어나 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와인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한 소비농블랑 와인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 뉴질랜드에서 차츰 인기를 얻고 있는 키위와인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으로 호주 주류시장에서는 향후 주종에 관계없이 고급주류 선호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앞서 언급한 대형 슈퍼체인 가격 경쟁으로 인한 주류가격 하락 역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